

황지해 작가가 디자인한
'원형정원 프로젝트: 달뿌리-느리고 빠른 대화'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정원디자이너·환경미술가

광주 출신 **황지해**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원형정원 프로젝트, 200여종 식물

2023년 12월 17일까지 운영

“동·식물·인간 어우러지는 정원으로”

수컷 멧돼지는 아름다운 붉은 깃털색을 유지하기 위해 노박덩굴 열매를 먹는다. 달콤한 꿀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딱죽나무는 벌들이 좋아하는 식물이다.

풀과 나무, 새와 곤충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생태 정원이 조성됐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시사철 식물이 건네는 마지막 대화와 새들의 노래에 귀 기울이며 위로와 위안을 얻는 정원이기도 하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 과천관이 미술관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정원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자연 속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정계산과 관악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중 미술관 2층과 3층 사이 야외공간에 위치한 원형옥상은 동글게 트인 하늘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지난 8일 일반에게 공개된 '원형정원 프로젝트: 달뿌리-느리고 빠른 대화'는 2023년 12월 17일까지 약 2년에 걸쳐 운영되는 기획으로 과천의 사계절을 담아내며 시간에 흐름에 따라 자연의 순환 과정을 보여준다.

정원 설계는 광주 출신 정원디자이너이자 환경미술가 황지해 작가가 맡았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황 작가는 2011년 영국왕립원예협회(RHS)가 주최한 첼시플라워쇼 아티잔 가든(Artisan Gardens) 부문에서 '해우소: 근심을 털어버리는 곳'으로 한국인 최초 금상과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에는 '고요한 시간: DMZ 금지된 정원'으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정원 디자이너로서 이름을 알렸다.

우리 땅에서 자생하는 고유한 종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정원을 통해 자연스러운 식재 연출을 지향하는 황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주변 산야의 식생과 한국 토종 식물들을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환경과의 공존과 공생을 제안한다.

작품명 '달뿌리-느리고 빠른 대화'는 한국의 화가에서 자생하는 '달뿌리풀'에서 따왔다. 동시에 원형정원이 자리한 건물의 원통 형태가 식물의 줄기와 유사하다는 데서 착안, 정원이 하늘의 달을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건물의 옥상은 달빛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달과 가장 근접한 곳이지요. 아무래도 미술관이라는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생태계는 분절될 수밖에 없죠. 단절된 생태계를 다시 있는 느낌,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건축물의 시설들을 정원에 녹여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커다란 기둥은 식물의 줄기로, 정원 곳곳에 놓인 5개의 벤치는 식물의 물관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원에 식재된 풀과 나무는 약 200여종에 달한다. 전 세계에 단 2종만 존재하고, 그 중 한 종이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습지식물 낙지다리, 박하향과 깻잎향이 나는 배초향, 섬개아카나무 등이 눈길을 끈다. 또 큰 바늘꽃, 단양 썩부쟁이 등 국가에서 보존이 시급하다고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심었다. 앞으로 봄여름가을겨울을 지나며 다양한 계절성 식물들을 더 식재하면 정원은 더욱 풍성해질 터다.

정원을 디자인하며 신경 쓴 부분 중 하나는 곤충이나 새의 산란 등을 돕는 식물을 많이 심는 것이었다. 담불송과 초지가 나비와 곤충과 새를 불러들이고, 그들이 머물다 가는 집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랐다. 원형정원은 동식물뿐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위로와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한다. 정원은 앞으로 카페 테라스 등이 조성되며 실내에서도 정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명상카페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원형정원 전체를 다양한 곤충과 조류들의 서식처가 되는 큰 원형 정자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동물과 식물이 공존하고, 또 인간들도 함께 어우



황지해 작가

러지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벌써 새들과 곤충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새들의 맞잡으로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웃음)."

정원을 원예와 조경의 한계를 넘어선 더 다양한 가치를 지닌 예술로 확장해온 황 작가는 자연의 무한한 생명력과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프로젝트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런던 플래저가든으로 옮겨져 전시된 '고요한 시간: DMZ 금지된 정원'과 영국 그린피스에 기증됐던 '해우소: 근심을 털어버리는 곳'은 2014년부터 광주호수생태공원에 재현돼 선보이고 있다. 또 네덜란드 벤로플로리아드에 조성했던 정원 '별-어머니의 손바느질'은 프랑스 퉁스르소시에 온천공원에 옮겨져 영구 전시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동신 화백

장애 딛고 예술혼 불태운 박동신 화백 별세 맨드라미 시리즈 등 왕성한 작품 활동

선천적 왜소증을 딛고 불굴의 예술 활동을 이어온 박동신 화백이 10일 별세했다. 향년 61세.

영암 출신으로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장애를 극복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은 의지의 작가였다. 특히 뇌졸중으로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닥치자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며 인간 승리의 정신을 보여줬다.

남도의 다채로운 풍경, 정물 등을 화폭에 담아왔던 박 작가는 '맨드라미 화가'로 불린다. 그가 화폭에 풀어놓은 강렬한 붉은 빛의 맨드라미는 하늘 높이 뜬 보름달, 나비 등과 어우러져 다양한 감성을 전한다. 작가는 지난 2005년부터 줄곧 붉은 맨드라미를 그려왔다. '어머니가 준 선물이었다.'

지난해 맨드라미 작품으로 진행된 전시회에서 만난 박 작가는 "환한 보름달 아래 장독대에 정한 수를 떠놓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장독대 곁에 피어있던 맨드라미가 마음에 와 닿아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맨드라미 시리즈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는 나비와 휘영청 밝은 보름달 역시 늘 화폭에 함께 존재한다. 그의 작품에는 모두 맨드라미가 등장하지만 배치와 색깔 등에 따라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며 모래를 오브제로 사용해 거친 느낌을 전한다.

그는 7년 전에는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는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공력이 많이 드는 유희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으로 재료를 바꿔 꾸준히 작업을 이어갔다. 뒤늦은 결혼으로 딸 '하림'(하늘이 보낸 사람)을 얻은 박 작가는 처가인 베트남에서 만난 독특한 베트남의 맨드라미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화폭에 풀어냈다.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서양화가 김원중



맨드라미 화가 박동신 작 '월계관 연가'

작가(특광증 교감)는 "박화백은 굉장히 맑은 사람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고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을 나눈 좋은 친구였다"며 "그런 인성 때문에 그의 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였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작품에 대한 열정이 많았고 최근까지도 이들에 한 번씩 새로운 작품을 그리는 등 붓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며 "사랑하는 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광주미술상, 대동미술상 등을 수상한 박 작가는 지금까지 32차례 개인전을 열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빈소 광주남문장례식장, 발인 12일 문의 062-675-50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10월호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택 스 : 062-222-0195

특집
생애 최대 프로젝트
내 인생의 첫 책

- "소중한 것을 책에 담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출판 도전 활법
- "나의 첫 책, 감동의 시작이죠" 자신만의 책 펴낸 3인의 저자
-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준비하세요" 도서관 기획책 교섭 등 전문가 카이드로 출판 도전 가능

기대 속 넘어진 아티스트의 삶
올 가을 우리 집에 그림 한점 걸어둘까
미리보는 '아트광수'!

저권, 역사, 문화
화순은 힐링이다

- 마을 특산 중전쌀: 화순의 매력여행지
- 천지리맛 로컬 브랜드-작두콩차, 별미나라 인진옥등
- 예술을 담고 있는 공간, 카페 소버르

백제남의 대중음악의 자마달음
연예인의 학벌과 학력, 의미와 영향력은?

예명 초대작
강원국
"발과 글, 살아있어야 일민 사회로"

호사로 만나는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문화를 품은 건축물에서
진한 모더니스트
감성이 스민 공간
박인환문학관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신사를 가다 ③-머곡서
자유로운 거담 배치
무질서 속 조화 표현

프랑스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①
영화 '아가씨'와
장 필립 라모의 '탕부랑'

비엔날레 공간
'주요리 소문'
파격적인 예술카페
'No.8 in binor'

예명이 만난 이 사람
광주 FC유니폼 입고 2021시즌 활약, 임지성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령 보양차 인형문화복사팀
카디프 콩쿠르 우승 곡성 출신 '수퍼 바리톤' 김기훈

문화의 아이콘 피터는 예술단체는
"우리 밑과 우리 정서에 흠뻑 빠져 있어요"
광주-전남 우리가족 부르기

광진구 '예술가들의 한 끼'에
화가 최옥경의 아재 연주